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설교* · 박덕유**

|| 차례 ||

- I. 머리말
- II. 연구 대상과 절차
- III.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
- IV. 조사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양상
- V.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특징
- V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중 대역 병렬말뭉치 자료와 사전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이중 사용 빈도가 높은 의미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고찰하였다. 병렬말뭉치 분석 결과 ‘에’와 ‘로/으로’는 중국어의 대응 형식에서 다양한데 개사뿐만 아니라 ‘접속사’, ‘조사’, ‘개사구’, ‘동사’ 등에도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에’와 ‘로/으로’의 의미 항목 중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에’와 ‘로/으로’를 학습할 경우 중국어와 ‘일 대 일’ 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오류가 나타날 것을 교사가 미리 예측하고 가르친다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 출현 빈도를 교재 편찬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부사격 조사, 한·중 대조 연구, 병렬말뭉치, ‘에’, ‘로/으로’

* 제1저자, 중국 통화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에’와 ‘로/으로’의 의미적 특징과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남호(2002) 1)에 의하면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의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두 조사가 한국인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는 모두 처소, 원인, 수단, 시간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묘한 차이도 존재한다.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는 서로 교체되어 쓰이기도 하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사격조사와 유사한 문법 기능을 하는 중국어 문법 요소로 ‘개사(介詞)’가 있는데 중국인 학습자는 ‘에’와 ‘로/으로’를 주로 개사와 ‘일 대 일’ 대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어의 과잉 적용으로 인한 오류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적인 측면에서 ‘에’와 ‘로/으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따라 중국어에서의 다양한 대응 양상을 고찰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칙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조남호, 2002)는 한국어 문어와 구어 발음치를 활용해서 한국어 어미, 조사, 단어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이다.

II. 연구 대상과 절차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에’와 ‘로/으로’의 의미 분류와 이에 대한 중국어의 대응 형식이 학자마다 다르다.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가 나타내는 의미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조사 ‘에’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는 동지앤화(2014), 왕일(2016), 劉伊(2016), 조건유(2013) 등이 있고, ‘로/으로’에 대한 연구는 장루(2014), 지소우(2017), ZHAO XUE FENG(2017) 등이 있다.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을 비교하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는 황정숙(2008), 한옥(2009), 王宗妍(2009), 대문(2011), 소령령(2012), 백설(2012), 유민(20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분석 대상인 ‘에’와 ‘로/으로’는 사전에 나타나는 용례나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용례를 토대로 중국어의 직감으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객관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이문화(2015)와 현은주(2018)는 각기 한·중 병렬말뭉치를 바탕으로 ‘에’와 ‘에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연구하였다. 이문화(2015)에서는 한·중 드라마 병렬말뭉치, 즉 입말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은주(2018)는 한국 소설 『고등어』와 『鯖魚』를 대상으로 즉 글말 자료에서 나오는 예문을 바탕으로 ‘에’와 ‘에서’의 의미를 구분하고 각각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입말과 글말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대상으로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은주(2018)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입말은 가변성과 일회성의 특징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에 비해 글말은 비교적 정제된 특징으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 입말이 지니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실제 교육 자료는 변화가 빠른 입말보다 정제된 글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과 『韓中·中韓字典』에서의 사전 의미를 살펴본 후에 말뭉치와 교재에서 나타난 ‘에’의 예문 768개와 ‘로/으로’의 예문 360개를 추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예문은 ‘세종 말뭉치’, ‘연변대학 중·한 대역 말뭉치2’ 및 연변대학교 편찬한 교재 〈初級韓國語〉, 〈中級韓國語〉, 〈高級韓國語〉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추출된 예문의 출현 횟수를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후에 각 사전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출현 횟수 10회 이상인 의미를 대상으로 각각 중국어의 대응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에’와 ‘로/으로’의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

1. ‘에’의 의미 기능

‘에’의 의미 기능을 보기 위해 먼저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2006), 『표준 국어대사

2) 연변대학 중·한 대역 말뭉치는 연변대학교 김영수 교수가 구축한 중·한 대역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중국 우수한 장면 소설 『림해설원』, 『청춘의 노래』, 『두 번째 악수』 등 5부와 한국어 번역본으로 구축되어 있다.

전』(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2009) 『韓中·中韓字典』(2000)에 기술된 의미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에’에 대한 사전별 의미 기능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韓中·中韓字典
1	처소	장소, 자리	장소, 위치	처소
2	시간	시간	시간	시간
3	움직임을 일으키는 대상	대상	행위나 감정, 인지 상태의 대상	대상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	
	목표나 목적 대상		목표나 목적 대상	
4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5	방향		방향, 목적지	진행방향, 지향점
6	수단, 방법	도구, 수단	도구, 수단, 방법	수단, 방법
7	기준, 비교	기준	비교, 기준	기준
8	조건, 환경, 상태	상황, 출전	상태, 환경, 상황	상황
9	단위	단위	단위	
10	자격, 신분	자격, 신분	자격, 신분	
11	첨가	첨가	더해짐	
12	열거		나열	
13		강조		

<표1>에 따르면 사전마다 ‘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 제시한 ‘에’의 의미는 ‘시간’, ‘처소’, ‘대상’, ‘원인’, ‘기준’, ‘상황’, ‘수단’ 7가지이다. 사전별로 사용한 전문용어가 다르지만 이를 나타내는 의미는 같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과 『韓中·中韓字典』에서는 ‘대상’의 의미 기능만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사전에서는 ‘대상’을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말뚝치에서의 예문을 통해 각 의미의 출현 빈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에 말뚝치에서 ‘에’의 예문 768개를 추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말뚝치에서의 ‘에’의 의미 기능

의미 기능		예문	출현빈도 (횟수)
1	처소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316
2	시간	-10시에 간다.	125
3	방향	-철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98
4	대상	-그는 교육 사업에 힘을 다 바치려 한다.	86
5	원인, 이유	-요즘 비에 강물이 불었으리라.	45
6	상황, 환경, 조건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빨리 걸어서 뭐하니?	26
7	단위	-보통 전화 한 통에 40원이에요.	20
8	비교, 비유, 기준	-기계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18
9	수단, 도구	-너 출장길에 우리 집에 오너라.	15
10	첨가	-3에 4를 더하다.	14
11	자격, 신분	-반장에 그가 뽑혔다.	12
12	범위	-포유동물에 무엇이 있지?	6
13	순서	-다음에 참관할 곳은 판문점이에요.	4
14	출처	-한국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2

사전 및 말뚝치를 통해 ‘에’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말뚝치에서는 ‘에’가 14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분류되었다. 기존 사전에서의 의미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전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말뚝치에서 출현 횟수 10회 이상인 의미를 대상으로 하여 11가지 의미 범주로 분류하였기에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3>과 같다.

〈표3〉 ‘에’의 의미 기능 분류

의미 기능		의미 기능 해석
1	처소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거나 위치 나는 곳, 사람이 살거나 머물러 있는 곳 등을 나타냄
2	시간	어떤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 또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지속되는 시간적 범위를 나타냄
3	방향	동작의 낙착지를 나타냄
4	대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나타냄
5	원인, 이유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나타냄
6	상황, 환경, 조건	행동의 실현에 관한 환경이나 조건을 나타냄
7	단위	값을 매기거나 셈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단위
8	기준	비교나 비유, 판단의 기준을 나타냄
9	수단, 도구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일을 처리하여 나가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를 나타냄
10	첨가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냄
11	자격, 신분	주체가 맡아보는 자리나 노릇 또는 직무 등을 나타냄

2. ‘로/으로’의 의미 기능

‘로/으로’의 사전별 의미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로/으로’에 대한 사전별 의미 기능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²⁾	韓中·中韓字典
1	방향	방향, 지향점	방향, 목적지	방향
2	경로	경로	경로	
3	재료,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재료, 도구, 수단,	도구, 수단, 재료
4	방식	방식, 양상, 모양	방법	
5	자격 신분	자격, 신분, 명성	자격, 신분, 명성	신분, 자격
6	변화	변화	변화	변화
7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원인, 이유

8	시간	시간	시간	시간
9		선택, 강조		
10		판단		
11		설명		

<표4>에 의하면 ‘로/으로’의 의미 기술이 사전마다 다르다. ‘로/으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방향, 경로, 재료, 도구, 수단, 자격, 신분, 변화, 원인, 이유, 시간’ 8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말뭉치에서 ‘로/으로’의 예문 360개를 추출한 출현 빈도는 <표5>와 같다.

<표5> 말뭉치에서의 ‘로/으로’의 의미

의미 기능		예문	출현빈도 (횟수)
1	방향, 지향점	-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142
2	경로	-범인이 뒷길로 빠져나갔다.	86
3	수단, 도구, 재료	-나무로 집을 짓는다.	36
4	방법, 방식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20
5	원인, 이유	-개혁개방을 함으로써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17
6	자격, 신분	-손님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13
7	변화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였다.	11
8	시간	-가을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10
9	순서	-이번의 임무는 첫째로 구어 기능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를 돌아보는 것이다.	8
10	선택	-큰 것으로 골라서 사십시오.	7
11	판단, 인정	-나는 그의 농담을 참말로 들었다.	5
12	강조	-참말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5

<표5>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의미 기능 및 말뭉치의 출현 횟수가 10회 이상인 항목 8가지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6〉 ‘로/으로’의 의미 기능 분류표

의미 기능		의미 기능 해석
1	방향, 지향점	행동의 지향점이나 방향, 목적지를 나타냄
2	경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에 경과하며 지나가는 곳을 나타냄
3	수단, 도구, 재료	재료나 구성을 나타내거나 행동의 방법이나 도구를 나타냄
4	방식	행동의 방식을 나타냄
5	원인, 이유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나타냄
6	자격, 신분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냄
7	변화	변화의 결과를 나타냄
8	시간	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점이나 시간의 범위를 나타냄

IV. 조사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양상

1. ‘에’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3장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에’의 11가지 의미 기능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개사나 표현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에’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의미 기능		중국어 표현
1	처소	Ø/在/往/上/中/下/里/在……上, 處, 里, 下/往……中, 里
2	방향	Ø/到
3	시간	Ø/……的時候/在……中/在/于/趁/中
4	대상	Ø/對/對於/于/被/叫/往/對/給/向/讓/叫/托/爲/爲……而
5	원인, 이유	Ø/因/以/所以/因爲/因爲……所以
6	상황, 환경, 조건	Ø/ (處) 于/ (處) 在……中
7	단위	Ø
8	기준	Ø/与/跟/同/和/于
9	수단, 도구	Ø/用/搭/坐/地/……地時候

10	첨가	Ø/連
11	자격, 신분	Ø/爲(wéi)

1) 처소

- (1) 가게에 또 무슨 과일이 있어요? 你們店里還有什么水果?
 (2) 그는 몸에 총을 지니고 호신한다. 他身上帶着槍防身.
 (3) 그의 곁에 책이 한 권 있다. 在他身側有一本書.

처소를 나타내는 ‘에’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없거나 ‘里, 上, 在’ 등이다. ‘里’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붙어서 처소를 나타낼 수 있고, 부서(机构)를 나타내는 단음절 단어와 결합해서 부서나 부서의 소재지를 나타낸다. ‘店里’ 뒤에 ‘有’가 있기 때문에 처소를 나타낸다. ‘몸에 총을 지니다’에서 총은 몸의 표면에 있는 것이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上’은 처소를 나타낼 때도 사물의 위쪽이나 표면의 공간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몸에’는 ‘身上’으로 대응된다. ‘그의 곁에’는 책이 있는 곳을 나타내므로 ‘그의 곁’은 중국어 ‘在他身側’와 대응되고 ‘에’는 ‘在’와 대응되는데 ‘在’는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낼 수 있다.

- (4) 5번 차 칸에 타라. 你坐五号車廂.
 (5) 그가 저쪽 결상에 앉았다. 他坐在那邊椅子上.
 (6) 그녀는 땅은 머리에 나비 매듭을 지었다. 她(在)辮子上系了个蝴蝶結.
 (7) 그는 대나무 마디에 붉은 끈을 뒀다. 他在竹節處系了个紅繩.
 (8) 그녀는 책 속에 쪽지를 꽂았다. 她在書里夾了張紙條.

행위지를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在,

在…上, 上, 在…處, 在…里’ 등으로 대응된다. ‘在’는 동작이 미치는 처소를 나타내는데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 뒤에 반드시 ‘上, 里’ 등의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명사를 붙여야 된다. ‘在…上’과 ‘上’은 사물의 표면 또는 길에 부착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在…處’는 표면보다는 동작이나 상태에 중점을 둔다. ‘在…里’는 사물의 안쪽을 의미한다. 예문 (6)과의 ‘머리, 辮子’은 신체의 일부분이라서 ‘在’는 ‘的’로 바꿀 수도 있고 생략해도 된다.

(9) 기름이 나무에 스며들었다.

油浸入了木料里。

(10) 그녀는 품에 여자아이를 안고 있다.

她怀里/中抱着个小女孩。

(11) 그는 작은 꾸러미의 물건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他把一小包東西塞到了我手里/中。

(12) 가마에 물을 부었다.

鍋里/中倒了水。

(13) 커피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往咖啡里/中再加入少量的糖。

(14) 이곳에 못을 박으세요.

往這個地方砸个釘子。

‘에’는 ‘里, 中, 往…里, 往…中, 往’으로 대응될 수도 있다. ‘里’와 ‘中’은 처소를 나타낼 때 안쪽이나 내부를 의미하며 ‘外’와 반대되는데, ‘里’는 내부라는 의미를, ‘中’은 한가운데나 중심, 중앙의 뜻을 갖는다. ‘往…里, 往…中, 往’은 처소뿐만 아니라 방향의 의미도 갖는다.

2) 방향

(15) 가면서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邊走邊想, 不覺到家了。

(16)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소에도 들를 겸 해서 왔습니다.

我們來是爲了到那医院打招呼，順便爲父親掃墓。

방향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동사 ‘到’와 대응된다. 그리고 ‘에’가 방향을 나타낼 때는 목적지라는 의미만 나타낸다.

3) 시간

(17) 우리, 오후에 만나자.

我們下午見吧。

(18) 그는 하루 동안에 200원이나 벌었다. 他一天就賺了兩百多元。

(19) 12세기에 예술의 최고 경지에 이른 고려청자도 강화도가 주요 생산지의 하나예요.

在十二世紀達到最高藝術境界的高麗青瓷，也以江華島爲主要產地之一。

(20) 본교는 3월1일에 개학하기로 정해져 있다.

本校定于叁月一日開學。

(21) 옛 친구들을 만났던 차에 술을 마셨다. 趁遇見老朋友的机会喝了酒。

(22) 설날에 북방 사람들은 만두를 먹는다. 春節的時候，北方人吃餃子。

(17)~(18)와 같이 명확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 중국어의 대응 표현은 없다. 반면에 (19)~(22)와 같이 명확한 시간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在, 于, 趁, ……的時候’에 대응된다. ‘在, 于’는 시간을 나타낼 때 서로 교체하여 쓰는 경우가 적다³⁾. 시간을 나타낼 때 ‘在+-NP’

3) 盧福波(1996:621)에서 “‘在’, ‘于’ 都跟動作的時間, 場所等有關系, 但是由于它們的意義不完全相同, 詞義色彩也不同, 還有搭配習慣上的差別, 所以大多不能換用。(‘在’와 ‘于’는 동작의 시간과 장소가 관련되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며 결합 관계 상의 차이로 대부분의 경우 교체 쓰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는 문장에서 상황어나 보어로 기능되는데 서술어 간의 관계가 그리 밀접하지 않다. 즉, 생략해도 문장 이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于’는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將于, 定于’의 고정된 구조로 쓰이고⁴⁾ ‘于’와 문장의 서술어 간의 관계는 ‘在’보다 밀접하다. 즉, 생략하면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23) 나는 검사과정에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접촉했다.

在調查過程中, 我接觸了各種各樣的人。

(24) 그는 초선에 이겼다.

他在初選中獲勝。

(25) 그는 수술 과정에 신음 소리 한 마디 안 냈다.

手術過程中, 他不哼一聲。

(26) 그는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在課堂上他發言很積極。

(23)~(26)에 사용된 ‘에’는 시간점을 나타내지만 ‘진행의 과정’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 단어 뒤에 오면 ‘在…中, 中, 在…上’으로 대응된다. ‘時候’와 ‘時’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지만 언제든지 교체하여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時候’는 흔히 주어, 목적어로 시간을 나타내고 ‘時’는 주로 문어(書面語)로 쓰이는데 ‘…的時, 在…的時’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에’ 앞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이 단음절 단어라면 ‘時’와 ‘時候’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27)의 예문에서처럼 ‘時候’는 ‘…的時候’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4) 盧福波(1996:625)에서 “‘于’是文言虛詞, 跟‘在’有明顯的語體色彩上的差別和構句格式上的差別, 有一些較為固定的搭配詞, 所以在使用範圍上, 跟‘在’有很大的差別。(‘于’는 문어화사이며 ‘在’와 비교하면 문체와 통사적 구조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된 언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在’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27) 예전에는 짐을 실은 낙타 행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

古時這由一隊拉行李的駱駝來完成。

古時候這由一隊拉行李的駱駝來完成。

4) 대상

(28)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這個用在哪?

(29) 우리는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我們應該成為對社會有用的人。

(30) 글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주제의 표현에 불리하다.

文章過長，反有損于主題的表達。

‘에’는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로 실현될 때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없거나 개사 ‘對, 于’와 대응된다. ‘對’와 ‘于’는 모두 대상을 나타낸다. ‘于’는 문어에서 쓰이는데 동사나 형용사 뒤에 따라붙지만 ‘對’는 꼭 용언 뒤에 붙는 것은 아니다.⁵⁾ 때문에 ‘對’와 ‘于’는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31) 그는 교육 사업에 힘을 다 바치려 한다.

他準備為教育事業盡力。

(32) 젊은이들은 나라의 발전에 분발해야 한다.

每個青年都應為國家得騰飛而奮鬥。

목표가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 ‘爲(wèi), 爲(wèi)···而’로 대응된다. ‘에’는 ‘을/를 위하여’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爲(wèi)’는 행동의 수의자나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爲···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5) 呂叔湘(1980)에서는 “用于書面。表示對象，跟名詞組合。(문어에서 자주 쓰이고 대상을 나타내며 명사와 결합 관계를 이룬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有求于人; 忠于職守; 大賽的形式不利于我們。

것을 나타낸다.

(33) 그는 문화 체육 활동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他是文体活動的積極分子。

(34) 그녀는 이 업무에 관심이 없다.

她對/對於這項工作不感興趣。

(35)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他不安于現狀。

행위나 감정의 대상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對, 對於, 于’로 대응된다. ‘于’는 꼭 어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기 때문에 ‘對, 對於’와 교체하여 쓸 수 없다. ‘에’가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낼 때 용언에는 흔히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기 때문에 중국어 ‘被⁶⁾, 叫⁷⁾’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36)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不要被他的謊言騙了。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나타낼 때 ‘被’와 ‘叫’는 문장에서 비교적 소극적 감정 색채를 갖고 흔히 심드렁하거나 불여의한 상태를 나타낸다.

6) 呂叔湘(1980)에서 “被, 介詞, 用于被動句。前面主語是動作的受動者。動詞后面多有表示完成, 結果的詞語, 或者動詞本身包含此類成分。(被는 개사로 피동문에서 자주 쓰인다. 주어가 동작의 수동대상이다. 동사 뒤에 항상 완성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붙어 쓰이거나 동사 자체가 완성이나 결과의 뜻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7) 呂叔湘(1980)에서 “叫, 介詞, 被。引進動作的施動者, 動詞前或后要表示完成, 結果的詞語或者動詞本身包含此類成分。用于口語。(叫자는 개사이고 被라는 뜻이다. 동작을 진행하는 주체이고 동사의 앞이나 뒤에 완성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야 하거나 동사 자체가 이런 뜻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37) 他的額頭叫石子打破了。(○) (38) 他的額頭叫打破了。(X)
 (39) 他的額頭被石子打破了。(○) (40) 他的額頭被打破了。(○)

‘叫’는 예(37,38)처럼 뒤에 꼭 시행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붙이는 반면에 ‘被’는 예문(39, 40)처럼 동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사물에 중점을 두고 실행자에는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앞에는 행동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행동의 시행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 (41) 그가 회의에 참석하든 말든 상관없다. 他到不到會沒有關係。
 (42) 북경에 도착하는 대로 집에 전화를 해라. 一到北京，馬上往(給)家 里打電話吧。
 (43) 자영업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많아요? 體戶給(往)國家上的稅多嗎？
 (44) 그 말은 소 귀에 경 읽기였다. 那句話成了對牛彈琴。
 (45) 그녀는 경건하게 신상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她虔誠地向神像跪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往, 對, 給, 向’ 등으로 대응된다. 동작의 접수자를 나타내는 ‘往’과 ‘給’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向’은 행동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면서 방향의 의미자질도 포함한다. ‘對’는 대함을 나타내기에 ‘向’, ‘給(往)’과 서로 교체할 수 없다.

5) 원인, 이유

- (46) 기계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 因爲機器聲沒法入睡。

(47) 그는 한 잔 술에 기분이 났다. 一杯酒下肚, 他就興奮起來了。

(48) 그때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은 보통 일이었다.

在那時候, 挨餓受凍是經常的事。

(49)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다. 秋風把樹葉刮了下來。

(50)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의지에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歷史的進步是不以人的意志為轉移的。

(51) 일자무식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

沒有文化, 很難找到工作。

원인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없거나 ‘因, 因爲, 所以, 因爲…所以, 以’ 등으로 대응된다. ‘因爲’, ‘所以’는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데 ‘因爲’는 원인을 나타내는 구 앞에 오고 ‘所以’는 일정한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앞에 온다. 원인을 나타낼 때 ‘因爲’는 구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⁸⁾ ‘에’와 대응되는 형식은 주어 뒤의 구에 온다. ‘因’은 ‘因爲’와 비슷하며 문어에 쓰인다.

6) 상황, 환경, 조건

상황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없거나 ‘(處) 于, (處) 在…(之)中’로 대응된다.

(52) 설날에 일을 좀 적게 해라! 大過年的, 少干点活吧!

(53)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있다. 處於價格上漲的趨勢。

8) 呂叔湘(1980)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因爲’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1) ‘因爲’用在前一个小句。(복합문에서 앞 문장에 쓰일 때) 예: 因爲天气不好, 飛機改在明天起飛。

(2) ‘因爲’用在后。(복합문에서 뒤 문장에 쓰일 때) 예: 這裏無法過江, 因爲水流太急。

(54)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 國家正處在危難(之)中。

7) 단위

단위를 나타내는 ‘에’에 대한 중국어의 대응 형태는 없다.

(55) 배추는 한 근에 얼마입니까? 大白菜多少錢一斤?

8) 기준

(56) 그래도 저에 비하면 나아요. 那也比我好。

(57) 그 사람 하나가 둘에 맞먹는다. 他這一個能頂倆。

(58) 지위에 상당하는 수입. 與其地位相當的收入。

(59) 부모님의 은정은 높은 산 깊은 바다에 비길 수 있다.
父母的恩情可以跟/同/和高山深海相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与, 跟, 同, 和’으로 대응된다. ‘与, 跟, 同, 和’는 모두 비교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与’와 ‘跟’는 동작이나 행위와 관련 있는 대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同’은 비교하는 대상과 같을지 다를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和’는 비교의 대상뿐만 아니라 ‘함께’라는 뜻도 갖는다. 그리고 ‘跟’과 ‘和’는 구어에서 많이 쓰이고 ‘与’와 ‘同’는 문어에서도 많이 쓰인다.

(60) 이치에 맞다. 合乎道理。

(61) 그의 이 예복은 외교적 장소에 어울린다.
他這套禮服適合于外交場合。

기준을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于’로 대응된다.

9) 수단, 도구

(62) 우리는 햇별에 옷을 말렸다. 我們用陽光把衣服弄干。

(63) 그가 인편에 편지를 보내왔다. 他讓/叫人捎來了信。

‘에’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 ‘用’로 대응된다.

그리고 도구를 나타내는 ‘에’는 중국어 ‘用, 搭, 坐’로 대응된다.

(64) 화물을 배에 실어낸다. 貨物搭/坐船運出去。

(65) 강물에 빨래를 했다. 用/拿河水洗了衣服。

10) 첨가

‘에’는 첨가를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 주로 대응 표현이 없거나 안에 포함됨을 나타내는 ‘連’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66) 나는 양복에 구두까지 샀다. 我買了西服, 又買了皮鞋。

(67) 국에 밥을 말아 먹다. 湯泡飯吃。

(68)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안다. 連孩子們都知道。

11) 자격, 신분

‘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에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爲(wéi)’로 대응된다.

(69) 그는 다시 교장 직무에 복직했다. 他又恢復了校長的職務。

(70) 그가 교장에 임명되었다. 他被任命爲校長了。

2. ‘로/으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표5>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의미 기능 및 말뭉치의 출현 횟수가 10회 이상인 항목 ‘로/으로’의 8가지 의미 기능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개사나 표현을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로/으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의미 기능		중국어 표현
1	방향, 지향점	Ø/往/上/到
2	경로	Ø/從/由
3	수단, 도구, 재료	用/搭/坐/由
4	방식	被/以/得/地/爲/靠
5	원인, 이유	由于/因爲/因
6	자격, 신분	作爲/當/爲 (wéi)
7	변화	Ø
8	시간	Ø

1) 방향, 지향점

(71) 가령 약을 먹은 다음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假使吃了藥有不良反應，就趕快上醫院。

(72) 건너와, 여기로. 到這裏來。

(73) 그는 몸을 뒤로 움직이었다. 把身體往後動了。

(74) 그는 책을 사러 시내로 갔다. 他上街買書去了。

방향을 나타내는 ‘로/으로’는 중국어의 대응 표현이 없거나 개사⁹⁾ ‘往, 上, 到’ 등과 대응된다. ‘로/으로’는 방향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만 지향

점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로’는 목적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到’와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향점을 나타내는 ‘往, 上’와도 대응된다. 이에 비해 ‘에’는 ‘到’만 대응된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학습자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흔히 ‘나는 서울에 떠났다.(X) 누나가 북쪽에 갔다.(X)’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2) 경로

(75) 자동차가 다리 위로 지나갔다. 汽車經過了橋。

(76) 강아지가 동네 입구로 들어갔다. 狗從/由洞口進去了。

‘다리 위’는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 ‘입구’는 이동의 방향이 아니고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어의 ‘從, 由’로 대응된다. 개사 ‘從, 由’는 경로를 나타내는 노선과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3) 수단, 도구, 재료

(77) 화물을 배로 실어내다. 把貨物搭船運出去。

(78) 그는 기차로 온다. 他坐火車來。

(79) 강물로 빨래를 했다. 用/拿河水洗了衣服。

수단을 나타내는 ‘로/으로’는 중국어 ‘搭, 坐’와 대응된다. ‘을/를 이용’하여 ‘나 ‘로써/으로써’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즉 어떤 도구를 선택하라는

9) 개사: 介詞. 『外國人實用漢語語法』에서 “加在名詞, 代詞前邊構成介詞結構, 表示動作的時間, 處所, 方向, 對象, 原因, 方式, 被動, 比較或排除等意義的詞.(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쓰여 개사가구가 구성되어 동작의 시간, 처소, 방향, 원인, 방식, 피동, 비교나 배제 등 의미를 나타내는 품사이다.)”라고 밝혔다.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중국어 개사 ‘用, 拿’와 대응된다. 예문(79)의 ‘用’은 ‘拿’로 바꿔 쓸 수 있다¹⁰⁾.

(80) 그는 무쇠와 같은 주먹으로 한간을 때리었다.

他用/拿鐵拳痛打了漢奸。

(81) 노인은 대나무 장대로 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老人正用/拿竹杆測水位。

(82)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자극했으나 그는 감각이 없었다.

用/拿强光刺激的眼睛, 他還是沒有知覺。

(83) 칼로 손가락을 베었다.

用刀割破了手指。(○)

(84)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手指被刀割破了。(○)

‘에’와 ‘로/으로’는 다 ‘수단,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다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에’는 ‘被’, ‘로/으로’는 ‘用’으로 대응된다.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형식이 다른 것은 ‘에’에 결합한 명사구가 도구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에’와 ‘로’가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에’는 ‘배경 수단’으로, ‘로’는 ‘도구 수단’으로의 의미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이금희, 2012:172). 즉, 여기서의 ‘에’는 피동성을 가지게 되어 중국어의 ‘被’와 대응된다. 그리고 개사 ‘被’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일으키는 주체를 나타내며 문장의 주어와 ‘被’ 뒤에 붙인 주체는 피동의 관계이다. 즉 문장의 주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받은 주체이고, ‘被’뒤에 붙인 주체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예를 들면, ‘他被汽車撞傷了’에서 ‘他’는 ‘撞’을 당

10) 盧福波(1996:23)에서 “‘拿’通常用來介紹動作, 行爲凭借的工具或事物, 表示這種意思時, ‘拿’有‘用’的意思.(행위나 동작이 사용하는 도구나 사물을 나타내는 ‘拿’가 ‘用’의 뜻도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하는 주체이고 ‘汽車’는 술어를 나타내는 ‘撞’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즉 ‘他’와 ‘汽車’는 피동의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 ‘用’은 ‘方式, 方法, 依据, 工具’를 나타내는 개사이다¹¹⁾. 때문에 ‘用’은 다만 쓰임의 뜻으로서 ‘도구’를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 간의 피동적 관계가 아니고 주어가 주동적으로 선택하여 쓰는 도구나 방법이다. 즉 문장의 주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당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행하는 주체이다. 예를 들어서 ‘他正在用 電台發報’에서 ‘他’는 문장의 주어이면서 ‘發報’라는 동작을 하는 주체이다. ‘電台’는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대상이다.

(85) 나무로 집을 짓는다. 用木頭蓋房子。

(86) 안경은 렌즈와 안경테로 구성되어 있다. 眼鏡由鏡片和鏡架構成。

(85)의 ‘나무로’는 ‘집’을 만드는 재료인데 ‘로/으로’는 중국어에서 ‘用’과 대응되고 (86)의 ‘로’는 구성의 대상으로 ‘由’와 대응된다. 중국어 ‘用’은 명사와 결합하여 재료를 나타낼 수 있으며 ‘由’는 재료나 구성을 나타낼 때 흔히 ‘由…構成’, ‘由…組成’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4) 방식

(87) 12는 4로 나뉘어 떨어진다. 12能被四除盡。

(88) 그는 무릎 꿇은 자세로 사격을 한다. 他以跪姿射擊。

(89) 네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請你把意見說得更具体些。

11) 黃伯榮, 廖旭東(1996:37)에서 개사에 대해 “表示方式, 方法, 依据, 工具, 比較, 按, 按照, 遵照, 依照, 靠, 本着, 用, 通過, 根据, 据(。방식, 방법, 근거, 도구, 비교, 의거, 의지, -을/를 통하다, -에 따르다 등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90) 다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 추상적으로만 논의하지 마라.

大家可以具体地說，不要光抽象地議論。

(91) 업무 보고는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工作報告分爲五个部分。

(92) 임무가 많아 너희들 두 사람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任務這麼重，光靠你們兩個人恐怕不行。

‘로/으로’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 어순의 제약을 받는 외에 ‘被, 以, 得, 地, 爲, 靠’ 등과 대응된다.

5) 원인, 이유

(93) 개혁개방을 함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由于改革開放，經濟得到了很大發展。

(94) 갑작스러운 폭우로 농작물이 떠내려갔다.

因爲暴雨農作物都被冲走了。

(95) 이 고장은 사과로로 유명하다.

這個地方因盛產蘋果而有名。

(96) 이 일로 일어난 쟁론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因爲這件事引起的爭論持續了几天。

由于這件事而引起的爭論持續了几天。

(93)-(96)에서의 ‘로/으로’는 ‘원인’을 나타내며 중국어에서 각각 ‘由于, 因, 因爲’로 대응된다. 원인을 나타내는 ‘由于’는 어떤 상황을 이루는 직접 원인을 강조하고 ‘而引起, 而引發’ 등의 구조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6) 자격, 신분

(97) 2부씩 복사를 해서 초고로 남겨둔다. 多复印两份, 好留个底儿。

(98) 누나가 학생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姐姐作为学生会主席积极工作。

(99) 나는 아침 겸 점심으로 국수를 먹고 길을 떠났다.

我吃一碗冷面来当早餐兼午餐, 然后上路了。

(100) 아버지께서는 동생을 당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 놓으셨다.

爸爸把弟弟定为自己的继承人。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로/으로’는 중국어에서 대응 표현이 없거나 ‘作为, 当, 为’로 대응될 수 있다. 자격을 나타내는 ‘에’와 ‘로/으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나타낼 때 ‘에’는 주로 말아보는 부서에 중점을 두고 ‘로/으로’는 지위나 신분에 중점을 두어 ‘作为’는 사람의 신분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는 ‘作为’로 대응될 수 없다. ‘为(wéi)’는 ‘로/으로 삼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에’와 ‘로/으로’는 모두 ‘为(wéi)’로 대응될 수 있다.

7) 변화

(101) 여기가 몇 해 전에는 황무지더니 지금은 옥토로 되었다.

这里, 几年前是片荒地, 现在却成为肥田了。

(102) 2년 전만 해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갑자기 무역 흑자국으로 변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前两年还是一个逆差国, 突然变成了顺差国, 真叫人惊奇。

(103) 눈이 물로 변화였다.

雪化成水了。

(104)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었다.

把100元的票子换成10元的。

변화를 나타내는 ‘로/으로’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成, 成爲(wéi)’ 등과 대응된다. ‘成’은 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앞에 동사가 올 수 있으며 뒤에 ‘了’를 붙일 수도 있다. ‘爲(wéi)’는 변하는 결과를 나타낼 때 흔히 ‘成’ 뒤에 붙여서 써야 하므로 ‘成’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8) 시간

(105) 그들은 삼 년 내에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106) 그들은 삼 년 내로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他們計劃在三年內把厂子辦起來。

시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 ‘로/으로’와 ‘에’는 서로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의 대응도 같다. 다만 ‘내’와 같이 쓰이면 ‘在…內’로 대응된다. ‘在…內’는 시간적 범위 안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기적 시간이라는 의미는 ‘로/으로’만 갖는데 예(106),(107)와 같이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은 없다.

(107)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工人們正夜以繼日地加緊生產。

(108) 가을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秋天的天气早晚冷颼颼的。

V.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특징

‘에’와 ‘로/으로’와 중국어의 대응 형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개사와 대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표현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단일 동사와 대응되는 경우

단일 동사와 대응하는 경우는 자격을 나타내는 ‘로/으로’의 의미 기능과 도구나 재료를 나타내는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에 주로 나타난다.

- ㉠ 누나가 학생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姐姐作爲學生會主席積極工作。(‘로/으로’[자격])
- ㉡ 찬물에 목욕하고서 감기에 걸렸다.
用涼水洗完澡后感冒了。(‘에’[도구, 수단])
- ㉢ 화물을 배로 실어낸다.
把貨物搭船運出去。(‘로/으로’[도구, 수단])
- ㉣ 이 가구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
這些家具都是用木頭做的。(‘로/으로’[재료])

2. 단일 방위사와 대응되는 경우

단일 방위사와 대응하는 경우는 주로 존재지를 나타내는 ‘에’의 의미 기능에 나타난다.

- 가게에 또 무슨 과일이 있어요? 你們店里還有什么水果? (‘에’[존재지])

3. 단일 개사와 대응되는 경우

부사격조사 ‘에’와 ‘로/으로’는 단일 개사와 대응하는 경우가 동사와 방위사에 비해 다양하다.

1) 한 개사가 부사격 조사의 한 가지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 ㉠ 그는 교육 사업에 힘을 다 바치려 한다.
他準備爲教育事業盡力。(‘에’[목표 대상])
- ㉡ 눈이 물로 변화였다.
雪化成水了。(‘로/으로’[변화])

2) 한 가지 의미 기능이 두 개 이상 개사와 대응되는 경우

- ㉠ 자영업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많아요?
个体戶給(往)國家上的稅多嗎?(‘에’[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
- ㉡ 그 말은 소 귀에 경 읽기였다.
那句話成了對牛彈琴。(‘에’[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

3) 한 개사가 두 개의 부사격 조사와 대응하는 경우

- ㉠ 이곳에 못을 박으세요.
往這個地方砸個釘子。(‘에’[행위 장소])
- ㉡ 그는 몸을 뒤로 움직이었다.
把身體往后動了。(‘로/으로’[방향])

4. ‘개사+방위사(方位詞)’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개사+방위사’와 대응되는 경우는 처소, 시간, 상황을 나타내는 ‘에’의 의미 기능에 주로 나타난다.

- ㉠ 그녀는 책 속에 쪽지를 꽂았다.
她在書里夾了張紙條。(‘에’[처소])
- ㉡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
國家正處在危難(之)中。(‘에’[상황])
- ㉢ 그는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在課堂上他發言很積極。(‘에’[시간])

5. 서술어나 명사 그 자체로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무표지 대응)

㉠ 반년 동안에 단어 천여 개나 배웠다.

半年時間學了一千多個單詞。(‘에’[시간])

㉡ 2부씩 복사를 해서 초고로 남겨둔다.

多复印兩份，好留個底兒。(‘로/으로’[자격])

이와 같이 중국어 개사와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로/으로’의 의미 기능에 있어서 서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응 형식이 없거나 ‘일 대 일’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대응 양상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에’와 ‘로/으로’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 말뭉치를 이용해 한국어 조사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형식을 밝혔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에’와 ‘로/으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에’와 ‘로/으로’의 다양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의미만 알면 잘못 쓰거나 회피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에’와 ‘로/으로’의 다의적 성격을 인식시키고 중국어의 대응 양상을 통해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의미 기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보면 각 의미 기능의 출현 빈도가 큰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에’의 경우에는 ‘방향’, ‘처소’, ‘시간’, ‘대상’의 의미 기능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로/으로’의 경우에는 ‘방향’, ‘경로’, ‘수단’의 의미 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나머지 의미 기능의 출현 빈도가 낮기에 이러한 출현 빈도를 통해 교재 편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미 기능의 출현 빈도를 근거하여 순서대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와 ‘로/으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에’와 ‘로/으로’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중국어의 대응 형식은 다양하다. 개사뿐만 아니라 ‘접속사’, ‘조사’, ‘개사구’, ‘동사’ 등에도 대응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에’와 ‘로/으로’를 가르칠 때 각기 그 의미적 기능을 중국어의 개사와 대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사와 대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복잡해서 학습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개사가 부사격 조사의 한 가지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의미 기능이 두 개 이상 개사와 대응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개사가 두 개의 부사격 조사와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한 개사가 두 가지 부사격 조사와 대응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을 때 생략 오류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에’와 ‘로/으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유형화하여 그 의미적 특성을 함께 설명해주면 훨씬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에’와 ‘로/으로’의 유사 의미로 ‘방향’, ‘수단’, ‘시간’, ‘자격’ 등 4가지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그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유사한 점으로 인해 ‘에’와 ‘로/으로’를 혼동하여 서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와

‘로/으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선후행 요소, 관용적 구성, 문장 구조와의 호응관계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에’와 ‘로/으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병렬말뭉치를 토대로 실증적인 언어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 및 학습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재 편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한·중 사전에서 ‘에’와 ‘로/으로’의 대역어와 용례를 보충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용례는 문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추출해 분석하였으므로 ‘에’와 ‘로/으로’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다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를 함께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전류〉

- 이희자·이종희,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李武英, 沈定昌, 『現代韓中·中韓字典』,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2000.

〈단행본〉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박덕유 외, 『한국어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2013.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
韋旭升, 許東振, 『韓國語實用語法』,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1995.
盧福波,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6.
黃伯榮, 廖序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1996.

〈논문〉

- 동찌앤화, 「부사격 조사 ‘에’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대문,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변웨이샤, 「한국어 조사 {로}와 관련되는 중국어 개사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집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pp.123-147.
백설, 「한국어 조사 {에/에서/(으)로}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소령령,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교육 연구 -‘~에, ~에게, ~에서, ~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석견, 성윤숙,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 대조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42집, 중국인문학회, 2009, pp.111-134.
왕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교육방안 연구-‘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문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국제어문』 제65집, 국제어문학회, 2015, pp.103-140.
- 이금희, 「조사 '에'와 '으로'의 유의성에 대하여」, 『국어학』 제64집, 국어학회, 2012, pp.165-184.
- 王宗妍, 「조사 용법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 비교 연구-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민, 「중국어권 학습자의 부사격조사의 사용오류와 교육방안 '에/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지소우, 「한국어 부사격조사 '로'의 의미 교육 방안- 중국어 대응 표현에 나타나는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장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로'의 교육 방안-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ZHAO XUE FENG,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로'의 교육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조건유, 「한국어 조사 '에' 와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조명곤,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연구 - '에'와 '에서'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제40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 pp.337-359.
- 황정숙,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 에게,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현은주, 「부사격 조사 '에',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고등어』와 『鯖魚』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38집, 영주어문학회, 2018, pp.277-318.
- 柳英綠, 「朝鮮語 'NP+에' 'NP+에서'와 漢語 '在+NP'의 對于」, 延邊大學漢語言文化學院, 1980.
- 金櫻, 「漢語存在句在韓國語中的對應形式」, 東北師範大學應用學及應用語言學, 碩士學位論文,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with Chinese of the Korean
Adverbial Propositions of ‘e’ and ‘ro / uiro’**

Xue Jiao·Park, Deok-yu

Focusing on the parallel corpus and lexicographic descriptions of Korean and Chinese, this thesis has selected the frequently used meanings and examined the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The analysis of the parallel corpus shows that the adverbial propositions of ‘e’ and ‘ro / uiro’ find diverse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They find corresponding expressions not only with Chinese prepositions but also in conjunctions, particles, prepositional phrases, verbs etc. And some of the semantic items of ‘e’ and ‘ro / uiro’ fail to find their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This cannot but throw learners into disarray. App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actual teaching of ‘e’ and ‘ro / uiro’ and helping teachers predict and including in class possible errors that arise when ‘one-on-one’ correspondence fails, such errors could be prevented. And if the frequency of examples extracted from the corpus is used as basic data, it will boost learning.

Key word : adverbial particle,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parallel corpus, ‘e’ and ‘ro / uiro’

설교(제1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xuejiao1986@msn.com

박덕유(교신저자)

소속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deokyu@inha.ac.kr

이 논문은 2019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9월 20일 게재 확정됨.

